GOLDEN 성격유형검사의 한국 타당화 연구*

오인수¹ · 손지향² · 이보림³ · 성태제⁴ · 송해덕⁵ · 김랑⁶
¹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³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조교수,
⁴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⁵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⁶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연구교수

A Study o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Oh Insoo¹ · Son Jiehyang² · Lee Boram³ · Seong Tae-Je⁴ ·
Song Hae-Deok⁵ · Kim Rang⁶

^{1,2,4}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³Halla University, Dept. of Teacher Education; ^{5,6}Chung-Ang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as a for adolescents and adults over the age of 15 that incorporates Carl Jung's theory of personality types as well as the Big 5 model. **Method:** The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was translated to fit the Korean situation, and a total of 1,450 adults, ranging in age from 20 to 60,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We checked whether the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had a valid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assessed. **Results:** First,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factor structure of the Golden Personality Type Test was confirmed, and the 5-factor structure was presented as most appropriate. Next as a result of the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most of th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of the facet scales were found to be adequate, which was confirmed to be suitable for the sub-factors of the corresponding global scales. In addition, in order to confirm reliability and validity, this study verified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MBTI personality type test. By obtaining a suitable reliability coefficient, this study also proved the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to be a reliable test. **Conclusion:** There is significance to this study in that a test with the utility of typology has also been validated in Korea while maintaining the most trusted Big 5 Model. In particular, if tense/calm scales, and 36 facet scal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personality type test based on Jung's personality type theory, are used,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can be a useful psychological instrument in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field.

Key words: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jung's personality type theory, big 5 model, MBTI

* 본 연구는 Golden성격유형검사 매뉴얼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Son Jiehyang.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e-mail: exchange5017@gmail.com

I. 서론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MZ세대 사이에서는 성격유형검사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아시아경제, 2022.7.25.; 한국일보, 2022.06.23.). 유독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국내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CNN에서도 주목하였다. CNN은 “한국의 젊은 층이 성격 유형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연애 상대까지 MBTI에 맞춰 고른다”고 보도하였다(CNN, 2022.7.22.). 성격유형검사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는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¹⁾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MBTI”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최근 8년간(2004년부터 2022년)의 관심도 변화량을 살펴보면, 검색량의 폭발적 증가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검색량은 전 세계 159개 지역 중 한국은 월등한 1위 국가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는 Carl Jung의 성격유형론을 기반으로 Katharine Briggs와 Briggs Myers 모녀가 개발한 검사로, 1990년에 한국판 MBTI 검사가 처음 소개되었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MBTI검사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인기와 활용도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가들은 검사의 신빙성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허용희, 2021). 전문가들은 검사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검사의 일부 문항들은 용의 성격 유형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정식으로 심리학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Katharine Briggs와 Briggs Myers)에 의해 만들어진 검사라는 점, 판단형과 인식형의 구분이 Jung의 유형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문항에 대한 반응을 긍정 또는 부정인 이분법적으로 측정하는 방식도 성격이라는 연속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MBTI 검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영재, 2022; 김창윤, 2020; 박철용,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검사가 선호되는 것은 성격유형검사의 유용성 때문으로 보인다. 성격 유형론은 성격을 몇 개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범주화의 원리에 따라 성격을 설명한다. 때문에 성격을 몇 개의 연속 변량으로 간주하는 특질론에 입각한 성격검사보다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실용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장점이 존재한다(박철용, 2020). 또한 단순히 MBTI검사가 지니는 제한점이 있다고 해서 Jung의 성격 유형론의 타당성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Jung의 성격 유형론을 받아들이며 그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MBTI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성격유형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창윤, 2020; 박철용, 2020).

한편 현대 심리학계에서는 성격 5요인 모형(Big 5 Model)이 포괄적인 성격구조를 보여주는 증

1)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의 검색수를 최저 0에서 최고 100의 값으로 환산하여 시간과 지역에 따른 검색량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거기반 모형으로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다. 성격 5요인 모델은 인간의 성격특성을 범주화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다(문희정, 안현의, 2020; 심예은, 최은실, 정승철, 2021; 안창규, 1997; 하대현, 김수연, 2003; Digman, 1990; Paunonen, 2003; Goldberg, 1993; Hough & Schneider, 1996; Rammstedt & John, 2007). 이에, 성격 5요인 모형을 기반으로 한 성격검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안현의와 안창규(2017)가 개발한 한국판 NEO 성격검사(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정승철(2016)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Big Five Inventory)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격 5요인 모형에 기반한 성격검사는 5개의 주요 요인들과 이들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하여 성격의 중요한 특성들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는 특징이 있다(안현의, 안창규, 2017; 정승철, 2016).

성격 5요인에 기반한 검사는 MBTI 검사와 같이 성격을 5가지 요인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5가지 요인 각각에 대한 특성을 T점수와 평균을 확인하여 성격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 개인의 성격을 요인별로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 간의 성격 차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검사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문가에 따라 성격을 기술하는데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김창운, 2020).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격 5요인에 기반한 검사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MBTI 검사와 같이 유형을 파악하는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MBTI 검사와 같이 유형론에 기초한 검사는 유용성으로 인기는 높지만 성격심리학과 측정학적 관점에서 취약한 반면, 성격 5요인에 기초한 검사는 과학적 타당성은 높지만 유용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Golden 성격유형검사(이하 Golden 검사)는 성격 5요인 모형에 기반을 두고 MBTI 성격검사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1993년 Edward Golden이 개발한 성격검사이다. 이 검사는 유형론이 갖는 유용성과 Jung의 이론과 성격 5요인이 갖는 이론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 검사이다(Golden, 2005b). Golden 검사는 이분 척도의 양자택일 방식을 사용한 MBTI 검사의 취약성을 측정학적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의미분석법에 기초한 7점 척도를 채택하여 신뢰도, 타당도 및 변별도를 높였다(Lozano, Garcia-Cueto & Muniz, 2008; Preston & Colman, 2000; Weng, 2004 등). 또한 중립응답을 허용함으로써 문항에 대한 양가적 태도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무작위 응답 등의 측정오차를 줄여 측정의 타당도를 높였다(김경성, 광현석, 2020; Dubois & Burns, 1975; Ory & Wise, 1981). 또한 성격 5요인 모형 중에서 MBTI 성격검사가 포함하지 않는 다섯 번째 요인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함으로써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이론적 타당성과 함께 유형 검사의 유용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Golden 검사는 Carl Jung의 심리학적 유형 이론(이하 성격 유형론)과 더불어 ‘5가지 성격 특성 요인 이론(이하 성격 5요인 이론)’을 통합하여 5가지 포괄적 차원(Global Dimension)을 통해 개인의 성격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완성도를 높였다.

Golden 검사의 개발자인 Edward Golden은 1954년 성격 5요인의 초기모형인 Bernreuter's Personality Inventory에 관해 학위논문을 쓴 심리학자로 1980년대에는 David Saunder와 팀을 이루어 MBTI Form J버전을 개발하였다. MBTI 검사 개발에 전공자로 참여했던 David Saunder는 MBTI 검사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Big5의 다섯 번째 요인을 MBTI 검사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이다(박철용, 2020). MBTI 검사를 업데이트 했던 Edward Golden은 David Saunder와 의견을 같이했고, 성격 5요인 모델과 Jung의 이론적 개념을 통합하여 1993년 Golden 검사를 개발하였다. 현재 Golden 검사는 그의 아들인 John Golden에 의해 업데이트 되어 전 세계 13개국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터키어, 체코, 러시아어 등)로 번역되어 보급 및 활용되고 있다(Golden, 1999; Golden, 2005b; Musgrove, 2021; Wagnerova, 2011; Wagnerova, 2013). 주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의 기업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Cornish, 2018; Manning, 2021), 취업 및 진로교육(Pearman, 2021)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Golden 검사는 세계적으로 심리상담 및 코칭,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서 출판된 Golden 검사를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였다. 영어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Golden 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적절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성격이론²⁾

Golden의 개념적 토대는 성격에 대해 잘 알려진 2가지 이론인 Carl Jung의 심리학적 유형 이론과 성격 5요인 이론에서 도출되었다(Costa & McRae, 1992; Fiske, 1949, Goldberg, 1990; Norman, 1963; Norman & Goldberg, 1966; Tupes & Christal, 1961; Wiggins, Behrends & Trobst, 2003; Golden, 2005a에서 재인용). Golden 검사는 성격유형이론의 관점에서 4가지의 포괄적 차원(Global Dimension)을 통해 개인의 성격을 모두 16가지의 유형으로 설명한다. 한편 Golden 검사는 다섯 번째 포괄적 차원인 정서적 안정성을 포함함으로써 성격 5요인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과

2) '성격이론' 절은 Golden(2005a)의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적으로 포괄적 차원 1부터 4까지는 Jung의 유형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포괄적 차원 5는 성격 5요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Jung의 성격유형론과 Golden 성격유형검사

Golden 검사는 Jung(1971)의 성격 유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Jung의 이론은 기원전 450년 선 행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과 같은 성격이론들과 같이, 소수의 개인적 특성들을 토대로 인간의 폭넓은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Jung은 외향 대 내향, 감각 대 직관, 사고 대 감정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으로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체계를 개발하였다(Myers & Myers, 1980).

Jung은 성격유형검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네 번째 척도인 판단(Judgement)과 인식(Percep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암시했으나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었는데, 이후 Myers와 Briggs가 MBTI를 개발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정의하였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Golden 검사는 Myers와 Briggs가 정의한 네 번째 척도를 조직(Organizing)과 적응(Adap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한편 MBTI 검사는 네 번째 척도를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Gorden(2005)은 판단(Judging)이라는 용어가 수검자들에게 비판(Judgmental)이라는 개념과 혼동을 유발하며 인식(Perceiving)이라는 용어는 전문가의 해석과 설명을 받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Golden(2005b)은 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조직(Organizing)과 적응(Adap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요인 분석을 통해 용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Golden 검사는 이상에서 설명한 4가지 포괄적 차원(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핵심어 조합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16가지 분류를 각각 “유형(type)”이라고 부른다.

(1)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 외향 vs 내향

Jung(1971)은 외향(Extraversion)과 내향(Introversion)을 “태도(Attitudes)”라고 지칭하고, 이것들을 사용하여 삶의 에너지(Life Energy) 또는 리비도(Libido)를 외부 또는 내부로 향하는 개인의 성향을 묘사하였다. Jung은 외향적인 사람의 흥미와 관심은 객관적인 사건, 특히 그 사람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향해 있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 사람의 행동을 사로잡는다고 하였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사고 및 개념과 같은 주제로 빠져들어 간다고 특징지었다(Jung, 1971).

(2)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감각 vs 직관

Jung은 개인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과를 도출할 때 선호하는 정신적 과정을 “기능(Functions)”이라고 명명하였다. 정보 수집의 서로 다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Jung이 설명한 기능은 감각 대 직관이다. 감각은 주로 “감각 지각(눈, 귀, 코, 입와 같은 감각 기관)과 신체감각(운동감각, 혈관운동 감각 등에 의해 매개되는 지각)”이라고 특징지었다. 반면 감각과 반대되는 기능으로 직관을 가정하였고, 직관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인 성격은 자신과 타인의 안정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향적이면서 직관적인 성격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쫓아 다니며 심상에서 심상으로 가능성을 찾는다. Jung에 따르면 감각과 직관은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이기보다는 반사적이거나 본능적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작용으로 간주된다(Ewen, 1993).

(3)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사고 vs 감정

기능(Functions) 내에서 Jung이 정의한 두 번째 대립은 사고 대 감정이다. 사고 대 감정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방법의 측면에서 서로 반대된다. 사고 대 감정은 의도적이고 자각된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기능으로 간주된다. 사고는 주로 이성과 논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다. 감정은 가치 또는 자신이 인정하고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비교적 사고는 더 비개인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감정은 조화에 초점을 두고 결정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4) 선호하는 생활방식: 조직 vs 적응

Katharine Briggs는 Jung의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즉 우리 삶에 있어서 외향적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의 개념을 사용하였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반면, Golden 검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직(organiZing)과 적응(Ada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네 번째 차원을 정의하였다. 조직과 적응은 생활방식의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설명한다. 조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개인들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의 삶을 지향하는 반면, 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개인들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의 삶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olden 검사는 Jung의 성격유형론에 기반을 두고 4가지 지표로 바탕으로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을 제시한다. 따라서 Golden 검사는 MBTI 검사의 16가지 유형과 동일하지만, 4번째 지표의 명칭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어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성격 5요인 이론과 Golden 성격유형검사

Golden 검사의 다섯 번째 척도는 성격 5요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격 5요인 모델에서는 다양한 성격변인 측정치들의 요인 분석을 통해 외향성, 친화성(또는 우호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및 정서적 안정성(또는 신경증)의 다섯 개 차원으로 성격유형을 구분했다(Costa & McCrae, 1992; Digman, 1990; Goldberg, 1981; Norman, 1963).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 및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에너지 수준을 의미하며,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향이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범과 원칙을 지키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문희정, 안현의, 2020; 심예은, 최은실, 정승철, 2021).

성격 5요인 이론은 Golden 검사의 다섯 번째 포괄적 차원인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차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Golden 성격유형검사 내에서 다섯 번째 포괄적 차원(긴장, 차분)을 제외한 4가지 주요 포괄적 차원들(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조직, 적응)은 성격 5요인 이론의 정서적 안정성을 제외한 4가지 요인들(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개념적으로 중첩된다. 반면,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첫 번째 포괄적 차원부터 네 번째 포괄적 차원의 개념들은 성격 5요인 이론의 정서적 안정성과 어느 부분도 유의하게 겹치는 것이 없다. 이러한 개념적 유의성은 Jung의 성격유형론을 기반으로 한 MBTI검사와 성격 5요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NEO검사의 상관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McCrae & Costa, 1989; MacDonald, Anderson, Tsagarakis & Holland, 1994; MacDonald, Anderson, Tsagarakis & Holland, 1995; Harvey, Murry & Markham, 1995; Furnham, 1996; Furnham, Moutafi & Crump, 2003)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 Golden 검사에서 가정하는 성격유형론, 성격 5요인 이론의 개념적 중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GOLDEN 성격유형검사와 성격유형론, 성격 5요인 이론의 개념적 중첩

Golden 척도	Jung의 성격유형론	성격 5요인
외향(Extraverting)/ 내향(Introverting)	외향(Extraverting)/ 내향(Introverting)	외향성(Extraversion)
감각(Sensing)/ 직관(iNtuiting)	감각(Sensing)/ 직관(iNtuiting)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친화성(Agreeableness)
조직(organiZing)/ 적응(Adapting)	판단(Judging)/ 인식(Perceiving) ³⁾	성실성(Conscientiousness)
긴장(Tense)/ 차분(Calm)	-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3) 판단과 인식은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Myers와 Briggs가 MBTI를 개발하면서 정의한 네 번째 척도임.

예를 들어, Golden 척도의 외향/내향 차원은 MBTI 검사에서도 동일하며 이는 성격 5요인의 외향형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같은 방식으로 감각/직관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사고/감정은 친화성과, 조직/적응은 성실성의 요인과 매칭된다. Golden 검사는 성격 5요인 모형의 정서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섯 번째 포괄적 차원인 긴장(Tense)과 차분(Calm) 척도를 추가하였다. 해당 차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이나 긴장의 정도를 반영한다. 긴장 척도가 높을 경우 예민하며 불안과 긴장 수준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차분 척도가 높을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하며, 편안하고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억압하고 있거나 둔감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일 수도 있다. Golden 검사에서 측정하는 긴장과 차분 척도는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정도로 앞선 포괄척도(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조직, 적응)와 마찬가지로 병리적인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거나 고려하지는 않는다.

2. 측정 구인

Golden 성격유형검사는 5가지 차원과 10개의 포괄척도 및 36개의 세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척도는 포괄척도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2~4가지의 세부척도를 갖고 있다. Golden 성격검사의 차원 및 척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차원 및 척도의 위계

포괄적 차원	포괄척도		세부척도		
	1.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	외향	말이 많은	사회적으로 대담한	개방적인
	내향	조용한	내성적인	친밀한	성찰적인
2.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감각	구체적인	실용적인	관습적인	전통적인
	직관	추상적인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유행을 따르는
3.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사고	이성적인	자율적인	분석적인	경쟁적인
	감정	감성적인	동정적인	따뜻한	보살피는
4. 선호하는 생활방식	조직	계획적인	일관된	신중한	동조하는
	적응	유연한	임기응변적인	즉각적인	동조하지 않는
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긴장	염려하는	확신이 적은		
	차분	낙관적인	자신감 있는		

1) 포괄척도

포괄척도(Global Scales)는 일반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상반되는 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척도는 개인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포괄적 차원1에서 4까지의 총 4가지 포괄적 차원들은 Jung의 이론에 기반하여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및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나타나는 8가지(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조직, 적응) 개인의 특성을 설명한다. 마지막 5번째 포괄적 차원은 성격 5요인 이론에 기반하여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2가지(긴장, 차분) 특성을 설명한다. Golden 검사의 포괄척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3>과 같다.

Golden 검사는 성격유형 차원으로 정의되는 포괄적 차원 1~4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유형을 표기하고 마지막에 포괄적 차원5를 추가하는 표기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발산하며(E), 감각에 기초하여 정보를 인식하고(S),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T) 조직적인 생활양식을 선호한다면(Z) ESTZ의 성격유형에 속하는데, 여기에 포괄적 차원5에서 긴장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면 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T유형이 되어 최종적으로 ESTZ-T 유형이 된다. 반대로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고(I), 직관에 기초하여 정보를 인식하고(N),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F), 유연한 생활양식을 선호한다면 INFA성격유형에 속하며 포괄적 차원5에서 차분(C)척도가 높게 나타났다면 INFA-C유형으로 표시한다.

<표 II-3>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 포괄척도

포괄적 차원	포괄척도	개념
1.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 시키는가?	외향(Extraverting)	에너지가 외부의 사람들과 사물을 향하는
	내향(Introverting)	에너지가 내부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향하는
2.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각(Sensing)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며 문자 그대로 처리하는
	직관(Intuiting)	정보를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3.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사고(Thinking)	논리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감정(Feeling)	공감과 동정심에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4. 어떠한 생활양식을 선호하는가?	조직(organizing)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규칙적인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적응(Adapting)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긴장(Tense)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고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차분(Calm)	자신감 있고, 차분하고 느긋한 경향이 있는

2) 세부척도

각 포괄척도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나타내는 세부척도(Facet Scales)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척도 또한 본질적으로 양극성을 띠고 있다. Golden 검사의 세부척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 세부척도

포괄 척도	세부척도	개념
E (외향)	말이 많은 (Talkative)	활기차고 표현력이 넘치는, 사교적이고 불임성 있는, 타인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적으로 대담한 (Socially Bold)	친근하고 외향적인,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는, 상대를 이끄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대중 연설을 좋아하는
	개방적인 (Outgoing)	친구 범위가 넓은, 혼자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즐기는
	참여적인 (Participative)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자극적인 활동들을 추구하는, 토론 학습을 선호하는
S (감각)	구체적인 (Concrete)	가능성 보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다루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능숙한
	실용적인 (Practical)	최종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선호하는, 즉흥적인 것을 싫어하는
	관습적인 (Conventional)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받아들여진 관행을 따르는,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전통적인 (Traditional)	예측 가능하고 확고한, 사실을 중요시하는, 명분없는 변화에 반대하는
T (사고)	이성적인 (Rational)	논리적 분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냉철한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자율적인 (Autonomous)	공정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보다는 업무 지향적인
	분석적인 (Analytic)	의사결정에 있어 논리와 과학적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석적인
	경쟁적인 (Competitive)	비판적, 회의적, 의지가 강한, 논쟁을 즐기는
Z (조직)	계획적인 (Planned)	일정을 세우고 일을 마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계획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직화된
	일관된 (Reliable)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는, 책임감이 있는, 규칙을 따르는, 일을 일찍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신중한 (Deliberate)	정확한, 신중한, 위험을 피하는, 목표 지향적인, 안정되고 충동적이지 않은 생활방식을 선호하는
	동조하는 (Conforming)	안전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선호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일하는

(표 계속)

포괄 척도	세부척도	개념
T (긴장)	염려하는 (Concerned)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무심코 말한 얘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확신이 적은(Unsure)	망설이는, 쉽게 당황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I (내향)	조용한 (Quiet)	차분하고 평온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내성적인 (Reserved)	수줍어하고 내향적인, 타인이 대화를 시작하며 주도하는 것을 따르는, 대중 연설을 싫어하는
	친밀한 (Intimate)	소수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 혼자 일하는 것을 즐기는
N (직관)	성찰적인 (Reflective)	평화와 고요함을 중시하는, 성찰과 재충전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독서를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추상적인 (Abstract)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즐기는,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루해하는
	혁신적인 (Innovative)	다양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낯선 상황과 위기 해결하는 것을 즐기는
	미래지향적인 (Visionary)	영감, 독특함 및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관습적이지 않은 것에도 편안한
F (감정)	유행을 따르는 (Trendsetting)	변화와 큰 그림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는, 반복된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감성적인 (Empathetic)	가치관과 인간 중심의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동정적인 (Compassionate)	타인의 감정, 신념 및 욕구를 고려하는, 업무보다는 관계 지향적인
A (적응)	따뜻한 (Warm)	의사결정에 있어 온정과 동정심을 중요시하는, 인간적인
	보살피는 (Nurturing)	협동적, 수용적, 지지적인, 조화를 선호하는, 충돌을 싫어하는
	유연한 (Open-Ended)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는,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임기응변적인 (Casual)	계획 변화에 수용적인, 미루다 마감일에 닥쳐야 일을 하는, 압박 속에서 일을 잘 하는
C (차분)	즉각적인 (Spontaneous)	상황과 기회를 보며 변화하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때로는 충동적인
	동조하지 않는 (Nonconforming)	규칙과 목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선호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때 더 효과적인
	낙관적인 (Optimistic)	낯설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도 편안한, 무심코 말한 얘기는 신경쓰지 않는
	자신감 있는 (Confident)	단호한, 자신감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각 포괄척도 및 세부척도의 문항 수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 포괄척도별 문항 수

포괄척도	세부척도	문항 수
외향/내향	말이 많은/조용한	7
	사회적으로 대담한/내성적인	8
	개방적인/친밀한	7
	참여적인/성찰적인	7
감각/직관	구체적인/추상적인	10
	실용적인/혁신적인	8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7
	전통적인/유행을 따르는	5
사고/감정	이성적인/감성적인	8
	자율적인/동정적인	7
	분석적인/따뜻한	8
	경쟁적인/보살피는	8
조직/적응	계획적인/유연한	9
	일관된/임기응변적인	12
	신중한/즉각적인	9
	동조하는/동조하지 않는	6
긴장/차분	열려하는/낙관적인	7
	확신이 적은/자신감 있는	9
총		14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한국판 Golden 검사의 번안 및 타당화 과정 중 본 검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모집되었다. 본검사에 응한 참여자는 총 1,450명이었으며, 참여자 연령대별 빈도는 20대에서 50대 참여자는 각 300명(20.69%), 60대 참여자가 250명(17.24%)이었다. 성별 빈도는 남성 726명(50.07%), 여성 724명(49.83%)이었다. 학력별 빈도는 '중졸 이하' 14명(0.97%), '고졸' 239명(16.48%), '대졸' 1,030명(71.03%), '대학원졸 이상' 167명(11.52%)이었다.

〈표 III-1〉 본검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대	20대	300	20.69
	30대	300	20.69
	40대	300	20.69
	50대	300	20.69
	60대	250	17.24
성별	남	726	50.07
	여	724	49.93
학력	중졸 이하	14	0.97
	고졸	239	16.48
	대졸	1,030	71.03
	대학원졸 이상	167	11.52
합계		1,450	100

2.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 타당화 과정

한국판 Golden 검사는 원 검사인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Golden, 2005b)의 영어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였으며 원 검사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한국의 문화적 배경 및 한국어의 언어적 표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판 Golden 검사의 번안 및 타당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내용전문가 및 측정전문가 6인의 검토 하에 원 검사의 전체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원 검사 문항 중 현대 한국의 성인들이 접했을 때 시대적·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문항은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면서도 현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When I am ready to leave a party, I am able to leave without fanfare./ likely to spend a lot of time saying goodbye.'라는 문항은 한국인에게는 생소하게 인식될 수 있는 파티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파티' 대신 한국 성인이 더욱 친숙하게 사용하는 '모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그밖에 구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항 또한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수정하였다. 첫번역 이후 국어교육과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쳐 참여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또는 원 문항의 의미와 측정 구인을 왜곡할 수 있는 문장 등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번역본을 역번역(back translation)하였고 이를 전문가 6인이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차 문항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둘째, 1차 문항 번역본을 바탕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지원자 표집방법(volunteer sampling)을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의 참여자 300명을 온라인으로 모집하였다. 예비검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참여자 각 300명), 각 예비검사 실시 후 검사 이론에 의하여 문항과

검사를 분석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 문항 응답 분포가 고르지 못한 문항, 신뢰도 지수 .6 미만 이거나 문항 제거 후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문항,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변별도 지수가 .3 미만 인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인 문항 가운데 3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을 양호도가 좋지 않은 문항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총 20개 문항) 전문가 6인의 재검 토를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2차 예비검사 및 검사 분석 후,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한 문항 양 호도 기준을 토대로 양호도가 좋지 않은 16개 문항을 수정하여 2차 문항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셋째, 2차 문항 번역본을 바탕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본검사 또한 예비검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의 지원자 표집방법을 통해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대의 참여자 1,450명을 모집하였다. 그 중 300명의 참여자를 표집하여 MBTI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를 공인타당도 검증에 활 용하였다. 본검사 문항 응답 자료를 검사 이론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예비검사 분석 시 활용한 문항 양호도 기준을 바탕으로 문항 양호도가 좋지 않은 문항의 전문가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 종적으로 한국판 Golden 검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3. 분석 방법

한국판 Golden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척도별 문항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 둘째, 척도별 점수 간 상관계수를 계산하였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 수렴 및 판별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시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탐색된 모형이 다른 표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 참여자 1,450명을 무작 위로 반분하여 각 750명씩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서로 다른 두 표본에 동일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모형을 각각 적용했을 때, 두 분석에서 모두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게 나타났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포괄적도를 기준으로 1요인 모형에서 5 요인 모형을 추정, 가장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 모형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모형에 따라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우도추정, 요인 회전 방법은 사각회전 중 적절한 것으 로 알려진(Browne, 2001) Geomin 방법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하는 최대우도추정방법을 사용했을 때 비정칙 행렬(non-positive definite matrix) 문제가 발생하였 으므로 그 대안으로 Bayesian 추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Bayesian 추정 방법은 복잡한 모형이나 작 은 표본과 같이 비교적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건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Muthén, 2010).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첫 번째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1로 고정하여 추정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모형적합도는 χ^2 , RMSEA, CFI, TLI, SRMR을 확인하였다. Mplus 8.0 에서는 Bayesian 추정 시 모형적합도로 SRMR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 시에는 PPP(Posterior predictive p value), RMSEA, CFI, TLI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부 참여자에 한해 추가 실

시한 MBTI 검사 결과와의 상관분석 및 분류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두 검사의 측정 구인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한국판 Golden 검사의 포괄척도는 MBTI 검사의 측정 구인과 1:1로 연결된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구인끼리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는지,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는 구인끼리 낮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두 검사 모두에 응시한 참여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분류 일치도 분석으로 일치도 통계값과 Kappa 계수를 계산하였다. 넷째, 척도별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판 Golden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척도별 기술통계, 상관계수 산출, 분류 일치도 분석, 신뢰도 계수 산출은 SPSS 21.0을 사용하였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8.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한국판 Golden 검사(본검사)의 참여자 성격 유형 분포는 <표 IV-1>와 같다.

<표 IV-1> 참여자 성격 유형 분포

(N=1,450)

유형	빈도(명)	비율(%)	유형	빈도(명)	비율(%)
ENFA	13	0.90	INFA	6	0.41
ENFZ	45	3.10	INFZ	29	2.00
ENTA	9	0.62	INTA	11	0.76
ENTZ	48	3.31	INTZ	56	3.86
ESFA	18	1.24	ISFA	29	2.00
ESFZ	116	8.00	ISFZ	246	16.97
ESTA	92	6.34	ISTA	137	9.45
ESTZ	148	10.21	ISTZ	447	30.83

분석 결과, 성격 유형 중 ISTZ가 447명(30.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ISFZ 246명(16.97%), ESTZ 148명(10.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INFA가 6명(0.41%)으로 가장 빈도가 적은 성격 유형이었으며, 다음으로 ENTA 9명(0.62%), INTA 11명(0.76%), ENFA 13명(0.90%) 순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포괄척도와 세부척도 문항 응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포괄척도와 세부척도별 문항 응답 평균 및 표준편차 (N=1,450)

척도	평균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외향	3.71	1.52	내향	4.29	1.52
말이 많은	3.61	1.52	조용한	4.39	1.52
사회적으로 대담한	3.88	1.48	내성적인	4.12	1.48
개방적인	3.67	1.58	친밀한	4.33	1.58
참여적인	3.66	1.49	성찰적인	4.34	1.49
감각	4.58	1.44	직관	3.42	1.44
구체적인	4.34	1.41	추상적인	3.66	1.41
실용적인	4.86	1.47	혁신적인	3.14	1.47
관습적인	4.63	1.42	미래지향적인	3.37	1.42
전통적인	4.53	1.47	유행을 따르는	3.47	1.47
사고	4.15	1.43	감정	3.85	1.43
이성적인	3.85	1.48	감성적인	4.15	1.48
자율적인	4.62	1.44	동정적인	3.38	1.44
분석적인	4.51	1.46	따뜻한	3.49	1.46
경쟁적인	3.66	1.36	보살피는	4.34	1.36
조직	4.51	1.52	적응	3.40	1.51
계획적인	4.47	1.60	유연한	3.53	1.60
일관된	4.47	1.54	임기응변적인	3.53	1.54
신중한	4.60	1.41	즉각적인	3.40	1.41
동조하는	5.07	1.45	동조하지 않는	2.93	1.45
긴장	4.04	1.52	차분	3.96	1.52
염려하는	4.19	1.53	낙관적인	3.81	1.53
확신이 적은	3.93	1.51	자신감 있는	4.07	1.51

분석 결과를 포괄척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향’은 평균 3.71, ‘내향’은 평균 4.29로 ‘내향’의 평균 응답이 더 높았다. ‘감각’은 평균 4.58, ‘직관’은 평균 3.42로 ‘감각’의 평균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고’는 평균 4.15, ‘감정’은 평균 3.85로 ‘사고’가 더 높은 평균 응답을 보였다. ‘조직’은 평균 4.51, ‘적응’은 평균 3.40으로 ‘조직’의 평균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긴장’은 평균 4.04, ‘차분’은 평균 3.96으로 ‘긴장’의 평균 응답이 더 높았다.

세부척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척도는 해당 척도가 속한 포괄척도의 경향성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세부척도의 경우 속한 포괄척도와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감정’의 ‘감성적인’과 ‘보살피는’, ‘차분’의 ‘자신감 있는’은 반대의 포괄척도가 더 높은 평균 응답을 나타내에도 해당 세부척도와 대응되는 반대의 세부척도보다 더 높은 평균 응답을 보였다. 또한 ‘적응’의 ‘동조하지 않는 척도’는 포괄척도와 경향성은 일치하였으나 대응되는 반대 세부척도 ‘동조하는’에 비하여 매우 낮은 평균 응답을 나타내었다.

2. 타당도 검증

1) 구인타당도, 수렴 및 판별타당도

(1) 척도 간 상관분석

포괄척도와 세부척도 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포괄척도와 세부척도 간 상관계수

(N=1,450)

세부척도	포괄척도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조직/적응	긴장/차분
말이 많은/조용한	0.89*	-0.32*	-0.10*	-0.21*	-0.47*	
사회적으로 대담함/내성적인	0.87*	-0.47*	-0.10*	-0.11*	-0.57*	
개방적인/친밀한	0.79*	-0.33*	-0.11*	-0.22*	-0.38*	
참여적인/성찰적인	0.85*	-0.21*	-0.18*	-0.16*	-0.49*	
구체적인/추상적인	-0.09*	0.51*	0.22*	0.52*	-0.08*	
실용적인/혁신적인	-0.36*	0.80*	0.10*	-0.20*	0.37*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0.39*	0.74*	-0.10*	0.37*	0.22*	
전통적인/유행을 따르는	-0.25*	0.75*	0.07*	-0.11*	0.26*	
이성적인/감성적인	-0.07*	-0.02*	0.76*	0.11*	-0.17*	
자율적인/동정적인	-0.19*	0.40*	0.64*	-0.30*	0.16*	
분석적인/따뜻한	0.02*	-0.09*	0.66*	0.28*	-0.17*	
경쟁적인/보살피는	-0.14*	-0.03*	0.63*	-0.25*	0.25*	
계획적인/유연한	-0.19*	0.29*	0.01*	0.77*	0.08*	
일관된/임기응변적인	0.02*	-0.04*	-0.09*	0.88*	-0.28*	
신중한/즉각적인	-0.37*	0.31*	0.07*	0.81*	0.05*	
동조하는/동조하지 않는	-0.20*	0.09*	-0.20*	0.72*	0.05*	
염려하는/긍정적인	-0.48*	0.27*	0.00*	0.04*	0.89*	
확신이 적음/자신감 있는	-0.55*	0.26*	0.04*	-0.14*	0.94*	

* $p < .05$

각 포괄척도와 그에 해당하는 각 세부척도 점수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포괄척도는 그에 해당하는 세부척도와 상관이 최소 .51에서 최대 .94의 범위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감각/직관과 구체적/추상적 간의 상관계수($r = .51, p < .05$)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긴장/차분과 확신이 적음/자신감 있는 간의 상관계수($r = .94, p < .0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포괄척도와 관련되지 않은 세부척도 점수 간 상관계수는 낮은 절대값을 가지거나 음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포괄적도에 대하여 1요인 모형에서 5요인 모형까지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포괄적도의 1~5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 비교 (N=725)

	χ^2	df	$\Delta\chi^2$	Δdf	p
1요인 모형	4448.793	135			
2요인 모형	2573.639	118	1875.154	17	<.05
3요인 모형	1840.907	102	732.732	16	<.05
4요인 모형	831.337	87	1009.57	15	<.05
5요인 모형	438.808	73	392.529	14	<.05

1~5요인 모형은 서로 위계적으로 내재된 관계에 있는 모형이므로,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모형 비교 쌍에서 요인 수가 많은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요인 수가 많은 5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5요인 모형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과 같다. 모형 적합도의 경우 χ^2 는 438.808(df=73), RMSEA는 .083, CFI는 .949, TLI는 .893, SRMR은 .026이었다.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고, RMSEA는 .08 미만(Browne & Cudeck, 1993), CFI와 TLI는 .95 이상(Hu & Bentler, 1999), SRMR은 .08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적절한 적합도로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5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포괄적도 중 외향/내향, 조직/적응, 긴장/차분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척도들이 해당 포괄적도에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감각/직관의 구체적인/추상적인,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사고/감정의 자율적인/동정적인의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 요인에 부하되거나 관계없는 포괄적도에서 더 높은 요인부하량이 나타났다.

<표 IV-5> 포괄적도 5요인 모형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725)

세부척도	요인부하량				
	외향/내향	감각/직관	조직/적응	사고/감정	긴장/차분
말이 많은/조용한	0.975*	0.002	0.018	0.033	0.090*
사회적으로 대담한/내성적인	0.759*	-0.206*	-0.007	0.023	-0.083*
개방적인/친밀한	0.583*	-0.076*	-0.099*	-0.05	-0.093
참여적인/성찰적인	0.715*	0.036	-0.003	-0.145*	-0.176*

(표 계속)

세부척도	요인부하량				
	외향/내향	감각/직관	조직/적응	사고/감정	긴장/차분
구체적인/추상적인	0.057	0.112*	0.622*	0.249*	-0.045
실용적인/혁신적인	-0.028	0.866*	0.050*	-0.035	0.114*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0.138*	0.399*	0.500*	-0.230*	-0.015
전통적인/유행을 따르는	-0.011	0.690*	0.073*	-0.068*	0.023
이성적인/감성적인	-0.172*	-0.026	0.063*	0.698*	-0.228*
자율적인/동정적인	-0.002	0.640*	-0.130*	0.500*	0.004
분석적인/따뜻한	0.022	-0.193*	0.285*	0.668*	0.022
경쟁적인/보살피는	-0.057	0.05	-0.150*	0.539*	0.321*
계획적인/유연한	0.076*	0.105*	0.756*	0.059*	0.065
일관된/임기응변적인	0.02	-0.379*	0.701*	-0.02	-0.218*
신중한/즉각적인	-0.265*	-0.009	0.680*	0.101*	-0.118*
동조하는/동조하지 않는	-0.110*	-0.384*	0.623*	-0.167*	0.134*
염려하는/긍정적인	-0.004	-0.019	0.279*	0.005	0.866*
확신 없는/자신감 있는	-0.300*	0.039	-0.041	-0.021	0.662*

* $p < .05$

(3) 확인적 요인분석

5요인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모형적합도는 PPP는 $<.05$, RMSEA는 .049, CFI는 .660, TLI는 .959로 나타났다. PP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고, RMSEA는 .08 미만(Browne & Cudeck, 1993), CFI와 TLI는 .95 이상(Hu & Bentler, 1999)일 때 적절한 적합도로 판단한다는 기준에 따르면 5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외향/내향, 조직/적응, 긴장/차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척도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0 이상으로,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확보된다는 Kline(2015)의 기준을 만족하여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감각/직관의 구체적인/추상적인,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사고/감정의 이성적인/감성적인, 경쟁적인/보살피는의 요인부하량은 .5 미만이었고 사고/감정의 분석적인/따뜻한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포괄척도 요인점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 절대값이 .7 미만으로 나타나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 .9 보다 작았으므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요인점수 간 상관계수 절대값이 가장 높은 포괄척도는 사고/감정과 감각/직관이었고($r = .691, p < .05$), 가장 낮은 포괄척도는 긴장/차분과 조직/적응이었다($r = -.137, p < .05$).

〈표 IV-6〉 포괄적도 5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725)

	모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부하량				
외향/내향	말이 많은/조용한	1.000	-	.843*
	사회적으로 대담한/내성적인	0.874	0.035	.826*
	개방적인/친밀한	0.665	0.035	.682*
	참여적인/성찰적인	0.762	0.036	.740*
감각/직관	구체적인/추상적인	1.000	-	.102*
	실용적인/혁신적인	15.920	5.241	.944*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5.231	1.817	.430*
	전통적인/유행을 따르는	10.680	3.631	.708*
사고/감정	이성적인/감성적인	1.000	-	.122*
	자율적인/동정적인	8.201	13.677	.836*
	분석적인/따뜻한	-2.028	7.540	-.188*
	경쟁적인/보살피는	1.426	3.133	.260*
조직/적응	계획적인/유연한	1.000	-	.632*
	일관된/임기응변적인	1.479	0.097	.860*
	신중한/즉각적인	1.138	0.072	.737*
	동조하는/동조하지 않는	1.356	0.099	.685*
긴장/차분	염려하는/긍정적인	1.000	-	.757*
	확신이 적은/자신감 있는	1.242	0.078	.904*
요인 간 분산 및 상관계수				
감각/직관	외향/내향	-22.091	6.971	-.390*
사고/감정	외향/내향	-8.716	11.958	-.147*
	감각/직관	3.810	3.265	.691*
조직/적응	외향/내향	-116.769	24.333	-.246*
	감각/직관	-7.859	2.751	-.237*
	사고/감정	-23.958	18.568	-.522*
긴장/차분	외향/내향	-388.658	38.632	-.612*
	감각/직관	16.730	5.338	.372*
	사고/감정	11.159	10.319	.229*
	조직/적응	-51.308	17.840	-.137*

* $p < .05$

2) 공인타당도

(1) 구인 간 상관계수

한국판 Golden 검사의 포괄척도와 MBTI 구인 간 상관계수 분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와 MBTI 검사의 구인 간 상관계수 (N=299)

GOLDEN	MBTI							
	E	I	S	N	T	F	J	P
외향	0.72*	-0.72*	-0.11	0.12*	-0.07	0.07	-0.20*	0.20*
내향	-0.67*	0.67*	0.23*	-0.22*	0.04	-0.02	0.16*	-0.16*
감각	-0.34*	0.34*	0.55*	-0.55*	-0.09	0.10	0.25*	-0.25*
직관	0.23*	-0.23*	-0.52*	0.53*	0.02	-0.02	-0.25*	0.26*
사고	-0.07	0.08	0.19*	-0.18*	0.65*	-0.64*	0.29*	-0.28*
감정	0.18*	-0.18*	-0.19*	0.18*	-0.68*	0.68*	-0.28*	0.27*
조직	-0.21*	0.21*	0.45*	-0.47*	0.10	-0.10	0.62*	-0.62*
적응	0.20*	-0.20*	-0.38*	0.39*	-0.21*	0.22*	-0.58*	0.57*

* 진한 회색 = 유사 구인, 옅은 회색 = 유사하지 않은 구인

* $p < .05$

분석 결과, 한국판 Golden 검사와 MBTI 검사의 구인 중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구인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였고 절대값은 .5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측정하는 구인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음수였고 절대값은 .52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성격유형 분류 일치도

한국판 Golden 검사와 MBTI 검사 결과 성격유형의 일치도 통계값을 계산한 결과,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45, Kappa 계수는 .38로 나타났다.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일반적으로 .85 이상일 때 양호하다(성태제, 2018)는 기준과 Kappa 계수가 .20 이상이면 양호하다는 기준(Landis & Koch, 1977)에 따르면 두 검사의 성격유형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낮으나 Kappa 계수는 양호하였다. ENFA(Golden)와 ENFP(MBTI)의 경우 일치율이 1.00으로 나타났고 ISTA(Golden)와 ISTP(MBTI), ISFA(Golden)와 ISFP(MBTI), INFA(Golden)와 INFP(MBTI)는 일치율이 .00으로 나타났다.

성격 유형의 각 차원별 일치도 통계값을 계산한 결과 외향/내향(E/I, Golden)과 E/I(MBTI)의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88, Kappa 계수는 .75, 감각/직관(S/N, Golden)과 S/N(MBTI)의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74, Kappa 계수는 .39, 사고/감정(T/F, Golden)과 T/F(MBTI)의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84, Kappa 계수는 .65, 조직/적응(Z/A, Golden)과 J/P(MBTI)의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80, Kappa 계수는 .43으로 나타났다. 성태제(2018)와 Landis &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성격유형의 차원별 일치도 통계 결과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3. 신뢰도

포괄척도와 세부척도별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계산 결과는 <표 IV-8>와 같다. 분석 결과, 모든 포괄척도는 신뢰도 계수가 최소 .7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척도의 경우 수용 가능한 최소 신뢰도 계수를 .50 이상, 적절한 신뢰도 계수를 .60 이상으로 설정한 Nunnally(1978)의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외향/내향의 개방적인/친밀한(.57), 감각/직관의 구체적인/추상적인(.51),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55), 분석적인/따뜻한(.55), 경쟁적인/보살피는(.57)은 신뢰도 계수 .60 미만이었으나 Nunnally(1978)가 언급한 '수용할 수 없는 최소 기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8> 포괄척도와 세부척도별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s a*) (N=1,450)

척도	<i>Cronbach's a</i>
외향/내향	0.91
말이 많은/조용한	0.80
사회적으로 대담한/내성적인	0.77
개방적인/친밀한	0.57
참여적인/성찰적인	0.73
감각/직관	0.81
구체적인/추상적인	0.51
실용적인/혁신적인	0.84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0.55
전통적인/유행을 따르는	0.66
사고/감정	0.78
이성적인/감성적인	0.64
자율적인/동정적인	0.77
분석적인/따뜻한	0.55
경쟁적인/보살피는	0.57
조직/적응	0.89
계획적인/유연한	0.63
일관된/임기응변적인	0.80
신중한/즉각적인	0.72
동조하는/동조하지 않는	0.76
긴장/차분	0.85
염려하는/긍정적인	0.68
확신이 적은/자신감 있는	0.8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Jung의 성격유형이론과 성격5요인 이론을 통합한 Golden 검사를 15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한국판 Golden 검사의 번안 및 타당화 과정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들과 그에 따른 논의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olden 검사의 요인구조와 관련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한국판 Golden 검사의 요인구조는 검사가 의도한 요인 구조와 일치하였다. 1~5요인 모형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5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Golden 검사가 기반하는 성격 5요인 이론과 검사의 요인 구조가 서로 부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세부척도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대부분 .70에 근접하게 나타나, 검사가 의도한 포괄척도와 세부척도 간 관계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각각의 세부척도는 대응되는 포괄척도의 하부 요인으로 적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 검사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성격 5요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형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지닌 검사가 한국에서도 타당화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MBTI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격 5요인의 내용이었던 정서적 안정성을 독립된 구인으로 확인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성격 5요인 모형을 기반으로 한 성격 5요인검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정도와 정서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경증(neuroticism)을 측정하며, 우울, 불안, 충동성 등의 임상적 요소를 확인하지만(정승철, 2016), Golden 검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을 측정한다. 긴장(tense)과 차분(calm)의 정도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병리적 취약성 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기질적 반응에 초점을 두어 성격 강점을 파악하는 장점을 지닌다. 최근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과 불안 반응이 병리적인 반응이 아니며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준비를 높이고 생산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Norem, 2002). 이처럼 Golden 검사는 성격유형검사로서 5요인 모형에 기반을 둬으로써 기존의 성격유형 검사와 비교하여 보다 실용성을 높였다. 다만 ‘감각/직관의 ‘구체적인/추상적인’, ‘사고/감정’의 ‘분석적인/따뜻한’ 척도는 대응되는 포괄척도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향후 연구를 통해 두 세부척도의 의미가 해당하는 포괄척도의 의미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Golden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내용, 요인 구조, 외부 검사(MBTI)에 기초한 타당도 근거를 검증하였고 적절한 신뢰도 계수를 얻음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먼저, 한국의 문화적 배경 및 언어적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쳤다. 또한 역 번역본 제작 등 추가적 과정을 거쳐

원 검사 문항을 번역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1,450명의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검사 자료를 분석해 척도별 문항 응답 기술통계, 척도별 점수 간 상관계수,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별 문항 응답 기술통계 결과, 대부분의 세부척도는 해당 척도가 속한 포괄척도의 경향성을 따랐으나 일부 척도는 해당 척도가 속한 포괄척도의 반대 경향을 보였다. '감정'의 '감성적인'과 '보살피는', '차분'의 '자신감 있는'이 그에 해당하는데, 각각에 대응되는 세부척도인 '이성적인', '경쟁적인', '확신이 적은' 척도에 대해 수검자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 낮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적응'의 '동조하지 않는' 척도는 포괄척도인 '적응'과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다른 세부척도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 평균(2.93)이 나타났는데 이 또한 척도명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낮은 응답이 일어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Golden 검사에서 측정하는 36개의 세부척도는 긍정과 부정 또는 좋고 나쁨을 가정하는 척도가 아니며, 개념적으로 상반된 개념들이 쌍을 이루어 있으나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는 한국판 타당화를 위한 번역과정에서도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척도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섯 번째 포괄척도인 '긴장'과 '차분' 척도는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앞선 포괄척도(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조직, 적응)와 마찬가지로 병리적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거나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될 때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Golden 검사에서 가정하는 중립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보다 타당하게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상담장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MBTI 검사를 이용한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 서로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구인들 간의 점수 상관관계가 높았고 반대되는 구인들 간 점수 상관관계는 음수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유형 및 각 차원별 일치도 통계값을 계산한 결과 Kappa 계수의 수준이 적절하게 나타나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만 두 검사 간 성격유형의 분류 일치도 통계값은 .45로,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판 Golden 검사가 MBTI 검사와 어느 정도는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으나 MBTI 검사와 차별되는 Golden 검사의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우선 Golden 검사에서는 MBTI 검사에 존재하지 않는 5번째 척도가 존재하며, 한국판 Golden 검사의 측정 방식은 7단계 의미분석법 척도(1, 3섹션)와 7점 리커트 척도(2섹션)를 사용하며 특히 중립응답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MBTI 검사의 측정 방식과 차별점을 갖는다. MBTI 검사에서 사용하는 2단계 측정 척도보다 응답 단계 수가 많고, 중립 성향을 가진 수검자가 임의의 응답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MBTI 검사와 한국판 Golden 검사의 성격유형 분류 결과에서 낮은 일치도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추정 결과 대부분의 척도에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 계수가 산출되었다. 일부 척도의 경우 .60 미만의 신뢰도 계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수용 가능한

최소 신뢰도 수준인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척도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판 Golden 검사는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Golden, 2005b)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실제적 의의가 있다. 첫째, 이 검사를 통해 기존에 옹의 이론에 기반을 두어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들과 비교하여 성격 5요인 모형의 정서적 안정성 척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척도별로 제시되는 점수를 통해 다양한 성격특성을 섬세하게 파악하면서도 범주화를 통해 성격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 및 교육영역에서 개인의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교육자료 개발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Golden 검사는 성격 5요인 모형의 타당성과 유형론이 갖는 유용성을 포괄하면서도 성격이론에서 잘 알려진 두 개의 이론을 통합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 또한 확보하였다. 특히 Jung의 성격유형론에 기반을 둔 기존의 성격유형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긴장과 차분 척도와 36개의 세부척도를 활용한다면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척도에 한하여 나타난 특이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척도별 평균 응답 점수에서 특이한 패턴을 나타냈던 세부척도는 이성적인/감성적인, 경쟁하는/보살피는,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동조하는/동조하지 않는이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적절치 않은 포괄 척도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세부척도는 구체적인/추상적인,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 자율적인/동정적인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비교적 낮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세부척도는 구체적인/추상적인, 분석적인/따뜻한이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척도와 포괄척도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습적인/미래지향적인은 감각/직관 포괄 척도에 속한 세부척도이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조직/적응에도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수검자는 적응적 행동보다 조직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경향성이 요인분석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을 통해 Golden 검사가 기반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한국판 Golden 검사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누적 응답 자료를 이용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검사 문항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했던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수렴 및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가 수검자 본인이 지각하는 특성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결과타당도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보다 타당한 검사 결과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olden 검사의 공인타당도는 MBTI검사를 이용하여 성격 유형의 분류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기 때문에, Golden 검사의 다섯 번째 포괄척도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척도(긴장/차분)의 공인타당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긴장/차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격 5요인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검사(예: NEO인성검사, 성격5요인 검사)를 활용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검사 자료 분석을 통해 검사 도구가 시대적 흐름과 문화에 따른 수검자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판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개정 등을 위하여 재 타당화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수검자가 분포될 수 있도록 표집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Golden 검사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교육현장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자료가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의 내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Golden 검사 워크북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효과검증 등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Golden 검사가 다양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활용 효과 등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Golden 검사는 한국판 타당화 이후 학술지로 발표되기 이전에 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고문헌

- 고영재 (2022).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 서울: 인스피레이션.
- 김경성, 곽현석 (2020). Likert 척도의 반응범주 수(3, 4, 5, 6단계)에 따른 초등학생용 심리검사의 신뢰도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75-92. doi:10.20972/KJEE.31.1.202003.75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창운 (2020). (웅의 성격 유형론으로 깊이를 더하는) 성격과 삶. 서울: 북캠퍼스.
- 문희정, 안현의 (2020). 성격 5요인을 기반으로 한 NEO 성격검사 성인용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이해, 41(1), 1-22.
- 박철용 (2020). MBTI의 의미. 전라북도: 하움.
- 성태제 (2018). 현대교육평가(5판). 서울: 학지사.
- 심예은, 최은실, 정승철 (2021). 성격 5요인검사 단축형(BFI-SF) 타당화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2(3), 105-134.
- 아시아경제 (2022.7.25.). "혹시 열정적인 중재자?" 한국 사회 스며든 MBTI, 재미로 즐겨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2109350932773>에서 2022.10.29. 인출
- 안창규 (1997).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안현의, 안창규 (2017). NEO 성격검사. 서울: 인사이트 심리검사연구소.
- 정승철 (2016). 성격5요인검사 성인용 매뉴얼. 서울: 한국가이던스.
- 하대현, 김수연 (2003). 5요인 성격검사의 타당화 연구. 사회 교육과학연구, 7(1), 41-68.

- 한국일보 (2022.06.23.). '나는 누구인가'...MZ세대가 MBTI에 빠진 이유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309590005783?did=NA>에서 2022.10.29. 인출
- 허용희 (2021). 민들레(2021년11-12월호 Vol.138). 서울: 민들레.
- Browne, M. W. (2001). An overview of analytic rotation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1), 111-150.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601_05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NN(2022.07.22.). How Koreans fell in love with an American World War II era personality test. <https://edition.cnn.com/2022/07/22/asia/south-korea-mbti-personality-test-dating-briggs-myers-intl-hnk-ds-t/index.html>에서 2022.10.29. 인출
- Cornish, R. (2018). Why have you heard of MBTI but not Golden? LinkedIn, <https://www.linkedin.com/pulse/why-have-you-heard-mbti-golden-ruth-cornish-fcipd->에서 2022.11.27. 인출
- Costa,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https://doi.org/10.1016/0191-8869\(92\)90236-I](https://doi.org/10.1016/0191-8869(92)90236-I)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uBois, B., & Burns, J. A. (1975). An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question mark response category in attitude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5(4), 869-884. <https://doi.org/10.1177/001316447503500414>
- Ewen, R. B. (1993).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ersonality* (4th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ske, D. W. (1949).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3), 329 - 344. <https://doi.org/10.1037/h0057198>
- Furnham A. (1996). The big five versus the big fou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and NEO-PI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2), 303-307. [https://doi.org/10.1016/0191-8869\(96\)00033-5](https://doi.org/10.1016/0191-8869(96)00033-5)
- Furnham A., Moutafi J., & Crump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6), 577-584. <https://doi.org/10.2224/sbp.2003.31.6.577>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41-165.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 fiv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https://doi.org/10.1037/0022-3514.59.6.1216>
- Goldberg, L. R.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1), 26-34.

- Golden, J. P. (1999). *The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technical manual* (4th ed). Mount Laurel, NJ: Organizational Renewal Associates, Inc.
- Golden J. P. (2005a).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technical manual*. 오인수, 송해덕, 성태제, 손지향, 이보람, 김랑 역 (2022). GOLDEN 성격유형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인사이트 심리검사 연구소.
- Golden, J. P. (2005b). *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 technical manual*. NCS Pearson.
- Harvey R. J., Murry W. D., & Markham S. E. (1995, May). *A "Big Five" Scoring System for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May, Orlando.
- Hough, L. M., & Schneider, R. J. (1996). Personality traits, taxonomies and application in organization. In K. R. Murphy (Ed.), *Individual difference and behavior in organization*. SF: Jossey-Bas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 Lozano, L. M., García-Cueto, E., & Muñiz, J. (2008). Effect of the number of response categories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ating scales. *Methodology: European Journal of Research Methods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4(2), 73 - 79. <https://doi.org/10.1027/1614-2241.4.2.73>
- MacDonald D. A., Anderson P. E., Tsagarakis C. I. & Holland C. J. (1994).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74(1), 339. doi:<https://doi.org/10.2466/pr0.1994.74.1.339>
- MacDonald D. A., Anderson P. E., Tsagarakis C. I., & Holland C. J. (1995). Correlations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Facets. *Psychological Reports*, 76(2), 449. <https://doi.org/10.2466/pr0.1995.76.2.44>
- Manning, J. (2021). 6 tools for busy HR professionals. Pearson. <https://www.english.com/blog/6-tools-busy-hr-professionals/>에서 2022.11.27. 인출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9). Reinterpret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1), 17-40. <https://doi.org/10.1111/j.1467-6494.1989.tb00759.x>
- Musgrove, S. (2021). *Understanding personality with Dr. John Golden: Growing as grown-ups*. <https://www.growinggrownups.com/golden/>에서 2022.11.27. 인출

- Muthén, B. (2010). *Bayesian analysis in Mplus: A brief introduction*.
<https://www.statmodel.com/download/IntroBayesVersion%203.pdf>에서 2022.10.23. 인출.
- Myers, I. B., & Myers, P. B. (1980). *Gifts differing*.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Norem, Julie K. (2002). *Positive power of negative thinking*. 임소연 역 (2015).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잘되는 이유. 서울: 한국경제신문.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6), 574 - 583.
<https://doi.org/10.1037/h0040291>
- Norman, W. T., & Goldberg, L. R. (1966). Raters, ratees, and randomness in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81-691. <https://doi.org/10.1037/h002400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ry, J. C., & Wise, S. L. (1981). *Attitude change measured by scales with 4 and 5 response o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Chicago.
- Paunonen, S. V. (2003). Big-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replicated predictions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411-422. <https://doi.org/10.1037/0022-3514.84.2.411>
- Pearman, R. R. (2021). Articles on MBTI applications & Personality Types.
<https://www.personalitypathways.com/article/golden-type.html> 에서 2022.11.27. 인출
- Preston, C. C., & Colman, A. M. (2000). Optimal number of response categories in rating scales: reliability, validity, discriminating power, and respondent preferences. *Acta Psychologica*, 104(1), 1-15.
[doi:https://doi.org/10.1016/S0001-6918\(99\)00050-5](https://doi.org/10.1016/S0001-6918(99)00050-5)
- Rammstedt, B., & John, O. P. (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203-212. [doi:https://doi.org/10.1016/j.jrp.2006.02.001](https://doi.org/10.1016/j.jrp.2006.02.001)
- Tupes, E. C., & Christal, R. E. (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 (USAF ASD Tech. Rep. No. 61-97). Lackland Air Force Base, TX: U.S. Air Force.
- Wagnerova, I. (2011). Golden Profiler of Personality. *E-psychologie*, 5(1), 83-86.
- Wagnerova, I. (2013). Golden Profiler of Personality. *Psychologie Pro Praxi*, 1(2), 77-82.
- Weng, L. J. (2004). Impact of the number of response categories and anchor labels on coefficient alpha and test-retest reliabil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6), 956-972.
<https://doi.org/10.1177/0013164404268674>
- Wiggins, J. S., Behrends, R. S., & Trobst, K. K. (2003). *Paradigms of personality assessment*. New York, NY: Guilford Press.

국문초록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한국 타당화 연구

오인수¹·손지향²·이보림³·성태제⁴·송해덕⁵·김량⁶

¹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³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조교수,
⁴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⁵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⁶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연구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arl Jung의 성격유형론과 성격 5요인 모델을 통합한 Golden 검사(Golden Personality Type Profiler)를 15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Golden 성격유형검사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안하였고, 전국의 20대부터 60대까지 총 1,450명의 성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Golden 검사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Golden 성격유형검사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5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부척도(Facet Scales)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대부분 적합하게 나타나 대응되는 포괄척도(Global Scales)의 하부요인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MBTI성격유형검사와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적절한 신뢰도 계수를 얻음으로써 Golden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격검사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성격 5요인(Big 5 Model)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형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지닌 검사가 한국에서도 타당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Jung의 성격유형론에 기반을 둔 기존의 성격유형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긴장(Tense)과 차분(calm) 척도와 36개의 세부척도를 활용한다면 실제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Golden 성격유형검사, Jung의 성격유형론, 성격 5요인 모델, MBTI

투고일: 2022. 10. 30. / 심사일: 2022. 11. 03. / 심사완료일: 2022. 12. 20.